

양돈업계에 널려 있는 거품을 빼자 중돈장에서 빼야 할 거품



원 성 오 대표
(한국덴브레드)

IMF 바람에 온 나라가 난리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정도이니...

두 사람만 만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IMF' 요.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 IMF 운운하는 것을 보니 IMF는 참으로 우리들의 피부에 밀착되어 있나보다.

그동안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IMF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로 우리 국민들은 어느새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게 되었고, 국내만 바라보던 경제의 시각을 해외

로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안목도 가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은행이나, 기업을 인수 합병한다고 하면 마치 나라가 거덜나고 그들의 손에 경제권이 들어가 큰일이나 날 것처럼 안절부절하던 것이 이제는 상당히 그 이해의 폭이 넓혀져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제관을 갖는데 IMF가 일조했다고 나 할까?

오늘날 세계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하나의 지구촌 경제이다. 국경이 지리상으로는 존재

할 뿐이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소비니즘 등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그 부가가치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편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물건만 팔고 남의 물건은 우리나라에 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장벽을 쌓으면 이것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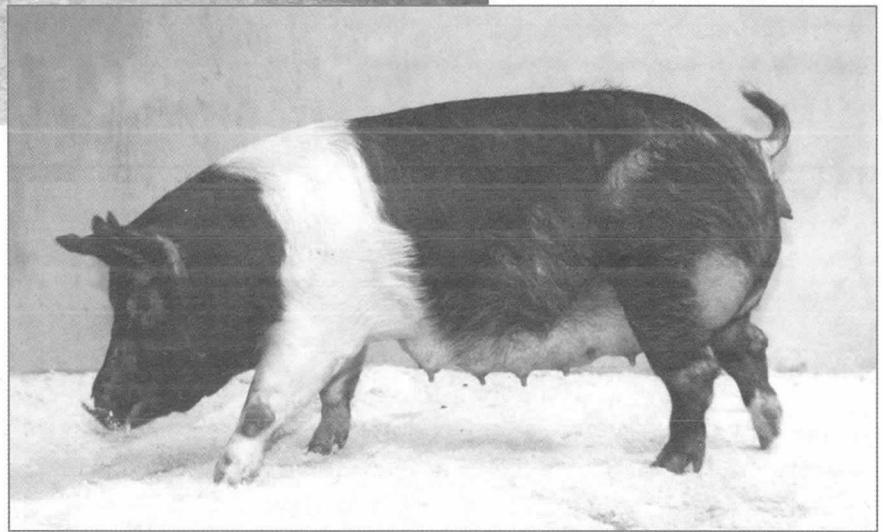
이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새로운 시대가 이



이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상품이
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
격을 낮추는 길밖에 없다.

미 도래한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길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종돈
장도 이제 IMF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괄
목한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종돈
능력 검정소조차 없이 여기저
기 수소문하여 외모만 보고 동
기그룹중 덩치가 좀 큰놈을 종
돈으로 대충 골라 주먹구구식
으로 양돈업을 꾸려오던 것이,
오늘날 중앙능력검정소가 2개
소에다 전국 종돈장들로 하여
금 농장검정을 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나온 능력수치를 수집
하여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종돈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히
혁명적인 업적을 이루어 놓았
다.

어디 그것 뿐인가, 각종 만성
질병을 조기에 차단시킬 수 있
는 SE.W시스템까지 도입하여
“능력+위생돈”이라는 이상적인

종돈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업계에서나, 양
돈협회, 정부유관기관에서 상호
결집·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
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 또 양돈선
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
한 평가는 여전히 유보되어 있



▲거품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겸허한 종돈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종돈의
검정기록에 신
뢰성을 부여하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돈장의 생명이요, 최후의 보류이며 양심이다. 오늘날 홍보전, 광고전은 그도를 넘어 가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홍보, 광고는 진실을 항상 바탕으로 하여야 힘이 있는 홍보, 광고가 된다. 진실은 가장 강하기

다. 이에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직도 종돈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모두의 몫으로 돌려놓고, 본고에서는 IMF영향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종돈장들에게는 거품이 없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거품이란 무엇인가? 거품이란 속성상 잠시 부풀었다가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만 가하여도 없어지는 허풍을 말한다. 또한 다른측면에서는 실제의 크기보다 항상 부풀어 있어 가식과 허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거품현상'이라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거품'이

있다는 말은 비판적인 말이 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의 속성은 비판이나 힐난을 받아들이길 좋아하지 않고 이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더 좋아하는 까닭에 본란에서 지적하는 거품현상을 독자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신체의 어떤 부위에 병이 생겨 굼아 터지고 있으면 그 환부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보다 노출시켜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치료를 하여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더 좋은 신체를 갖게 되듯이 비판의 수용은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이다. 신뢰성이 없는 홍보와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흔히 종돈장의 영업사원이나 담당관측사원이 "우리 종돈장은 P.S.Y(연간 모돈1두당 생산두수)가 25두, 또 일당증체량이 1,300g, 사료요구율 1.8이다."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종돈을 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소위 '거품'으로 들린다. 물론 사실일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말하여야 한다.

외국선진양돈국의 경우 이렇게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수치만 가지고는 종돈의 객관적인 유전능력평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이유를 아시는 분은 이미 종돈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둘째, 종돈장 간에 불필요한 과다경쟁은 화를 초래한다.

사업이라는 것이 경쟁이 없는 있을 수도 없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수인 것 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을 모략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서 음

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어느 농장에는 무슨 질병이 들어왔다더라'... 등등 책임질 수 없는 근거없는 풍문이 우리 종돈업계를 돌고 있는 한 종돈장의 발전은 요원하다.

셋째, 전문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종돈장은 단순한 막노동이 아니다. 전문육종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시험, 실습이 수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비육돈 키우다가 종돈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여 전환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없는가?

넷째, 목표가 뚜렷하여야 한다.

종돈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개량목표, 사업의 목표가 없다면 경쟁에서 떨어지고, 훌륭한 종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 종돈의 능력은 이 정도이나, 향후 몇 년 안에 어느 수준까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추진계획이 있어야 한다. 과연 귀하께서는 현재 이 목표가 뚜렷히 설정되어 있는가?

다섯째, 종돈장은 성실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종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미치 예술가가 어떤 훌륭한 조각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심하고 노력하듯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러한 자세가 결여된 종돈장은 없는가 살펴 볼 일이다.

이러한 '거품'이 IMF라는 불청객과 함께 모두 훨훨 날아서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 지구밖으로 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줄고를 마감할까 한다. 글중에 무례한 점이 있으면 깊이 용서를 바란다. **養豚**



《사진》 종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미치 예술가가 어떤 훌륭한 조각품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고심하고 노력하듯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품이다.